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¹

박영신² · 김의철³

²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 ³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비행과, 동시에 청소년 행동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성취행동이,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귀인양식 및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집대상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N=143$)과 중·고등학생($N=189$)이었다. 분석결과,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성취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학생보다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사회경제적지위도 낮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부모의 통제가 많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학생은 부모의 통제가 적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으므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비행이나 성취와 같은 행동적 특징들은 개인의 귀인양식과도 관련이 있었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내적통제신념이 높고 운명귀인은 낮으며, 비행청소년일수록 외적통제신념이 높고 외집단영향귀인은 낮았다. 비행여부와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생은 비행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만족도 수준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성취행동과 건강의 관계는, 학업성취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분석에 의하면 1995년도 소년범죄 발생률은 1991년보다 21.2%가 증가하여, 전체범죄 증가율(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특히 학생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생범죄 증가율이 전체 범죄 및 전체 소년범죄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1년에

55.1%이었으나, 1995년에는 66.4%로서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접수된 1,000건의 피해사례 중에 62.1%가 학교내 폭력이었고, 등하교길 8.5% 집근처 7.0% 학원가 3.6% 등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편, 1996). 또한 1,000건의 상담사례 중에서 폭력피해 기간이 일회성인 경우가 22.6%이고,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의 32.2%나 되었다.

1. 본 연구는 1997년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이제 청소년들의 건전하지 못한 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집계된 비행 뿐만 아니라 숨은 비행을 고려하여 볼 때 더욱 그렇다. Gibbons(1976)의 공식비행과 숨은비행에 대한 모형은, 심각한 비행이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고, 비교적 가벼운 비행은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비행이 더 많음을 제시한다. 1975년 전체 소년인구에 대한 공식소년범죄의 비율은 0.68%이었던 데 비해, 심영희(1981)가 한국 근로 청소년과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대상자의 27%가 '잡혔다면 처벌받았을' 비행을, 한두번 이상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Gibbons(1976)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많은 '숨은 비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노성호(1993)가 청소년비행 현황을 공식통계, 자기보고, 피해자조사의 세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비교한 결과는, 공식통계보다 나머지 두 방법에 의한 청소년 비행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공식통계를 통해 보면, 청소년 비행이 매년 100,000건 정도 발생하여 총 비행의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나, 김준호 노성호 고경임과 최원기(1990)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경미한 비행이기는 하나 비행의 종류에 따라 70% 이상의 청소년이 경험한 것도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숨은 비행(hidden delinquency)이 기록비행(official delinquency)의 10배~15배로 추정된다(심용철, 1993).

이 연구에서는 이와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비행과, 동시에 청소년 행동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성취행동이,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귀인양식 및 건강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이 다른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므로써, 청소년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여기에서 가정환경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성취지향

과 통제물, 귀인양식으로는 능력 노력 운명 운 내 집단지원 외집단영향 귀인과 내적 외적 통제부위 신념을, 건강으로는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를 하위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청소년 비행여부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의 분류를 통해, 성취행동은 학업성취수준 집단별 분류를 통해 접근하기로 한다. 물론 청소년기의 성취행동이 학업성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방면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경험을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을 때, 고등학교 합격, 대학/대학원 합격, 성적향상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높은 반응율(37.6%)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한국 청소년들에게 학업적 성취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취행동으로 학업성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 귀인, 건강의 관계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

청소년 비행의 유발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다.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출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비교한 결과, 가출경험 학생들일수록 부모의 교육정도나 직업수준 및 평균 월수입이 훨씬 낮았다(이상미, 1997).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원호택(1991)의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았다.

청소년비행은 가정환경변인 중에서 부모의 결혼 여부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소년범죄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부모가 없거나 계부모인 경우는

소수이고 실부모가 있는 경우가 78.4%로 가장 많다(문화체육부, 1996). Rutter(1971)도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것보다는, 불화나 갈등이 자녀의 비행에 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지적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1997)에서 심사한 청소년(남 5,784명; 여 652명)을 대상으로 1996년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남 26.8%; 여 15.3%)만이 부모의 훈육태도가 적절했다고 반응하였고, 그 나머지는 방임, 익애, 일관성 결여, 엄격, 부모불일치, 거부 등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을 하였다.

남자 소년원생에 대한 면접결과(조현진·박성수, 1991)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시사를 하고 있다. 즉 비행청소년 부모의 훈육이 무력한 데 그 이유가, 평소의 훈육방식이 너무 강압적 처벌적이며 문제행동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너무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 대한 설득력이 점차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노는 애들 집단에서 받는 사회적 강화는 매우 강하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는 양적인 분석 결과들도 있다. 노동철(예정)이 농촌의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나 모의 통제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길자(예정)의 연구에서는 모의 통제만이 일탈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윤진, 김인경과 김길청(1989)의 연구에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이 중·고등학생보다 자아중심성이 높았는데, 비행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엄격하고 어머니가 애정이 부족하거나 과잉보호할 때, 자아중심성이 더욱 높았다. 소년원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대해서도 부모의 통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

다. 김준호 등(1990)이 재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권위적이고 통제적일 때 자녀가 문제행동을 유발하였다. 또한 안귀덕(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부모와 갈등이 많을수록 고등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남재봉(1992)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가 적을수록 부모와의 결속이 낮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높았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원호택(1991)의 연구에서도 학생과 비행청소년은 어머니 양육태도 중에 적대감, 통제, 일관성있는 규제, 성취에서, 아버지 양육태도 중에는 적대감, 합리적인 지도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보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태도가 적대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더욱 많았고, 반면에 어머니가 일관성있는 규제나 통제 및 성취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아버지도 합리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통제가 비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도 있다. 이 연구에서와 동일한 부모통제변인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여 도시(손정기, 예정)와 농촌(이길자, 예정)의 초등학생, 도시의 중학생(박강수, 예정) 및 농촌의 실업계 고등학생(노동철, 예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의 통제나 모의 통제 모두 일탈행동과 $r=.10$ 미만으로 거의 상관이 없었다. 소년원에 수감된 비행청소년과 학생의 부모양육태도를 비교한 박종화(1996)의 연구에서도, 자율-통제차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로서 성취지향성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있다. 박종화(1996)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보다 비행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길자(예정)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농촌 인문고와 실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노동철(예정)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취지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정도가 높았다.

부모의 통제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 외에도 자녀의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양육태도 상의 특성들이 밝혀지고 있다. 김광문 정철희와 윤화련(1982)은 청소년의 79.5%가 비행원인을 부모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의 불충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심웅철(199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방임형일 때 비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제형이며, 민주형인 경우에는 거의 없었다. 이훈구와 송인섭(1979)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과 정상집단(중고등학생, 근로자, 재수생)을 대상으로 비행점수를 구하여 12개 변인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불량교우가 $r=.79$ 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부모의 무관심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억압과 같은 부모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이 상관이 있었다. 도수경(1990)은 가출경험 청소년의 경우에 가족들의 결속력이 낮고, 경직되어 적응력이 낮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이나 사고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김준호 등(1990)이 고등학교 재학생 2,3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즉 부모에 대한 존경이나 동일시 및 애정의 정도가 낮을수록),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일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의 빈도가 높았다.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 정도와 부모와의 대화시간 및 부모가 기대하는 성적에 따른 비행의 빈도는, 재수생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민하영(1992)이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비행은 아버지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가족의 적응과 높은 부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거리감이 있으며, 가족들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고,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는 높았다. Park과 Kim(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일탈행동이 많았다.

청소년 비행과 귀인

비행이 인지적인 사고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윤진과 광금주(1991)는 공격적인 사고와 지식이 풍부한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공격영화 시청 후에 공격적 사고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결과를 통해,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사고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반사회성은 공격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사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을 통해, 광금주 김하연과 윤진(1991)은 정보처리과정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인지적인 사고과정 중에서도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의 통제부위신념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1995)의 통제부위신념검사로 소년원의 비행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의 통제부위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박종화, 1996), 비행청소년이 중·고등학생보다 내적통제신념이 낮고, 외적통제신념은 높았다. 차재호의 내외통제척도를 활용하여 소년원생과 학생들의 통제부위신념을 비교한 결과(원호택, 1991)는,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집단보다 외적통제신념의 평균값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의 정도와 귀인양식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들에서도 의미있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Park과 Kim(1998)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내적통제신념이 낮을수록 일탈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김의철이 제작한 성패귀인검사(박영신과 김의철, 1997)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연근, 1997), 일탈행동이 심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노력귀인을 적게 하였다.

청소년 비행과 건강

청소년의 비행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원호택(1991)의 분석에 의하면, 소년원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으며, 하위변인별로는 대인관계, 가정, 이성관계, 신체, 경제적인 면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장동산 이길홍과 민병근(1985)은 Zung(1971)의 자기평정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와 Zung & Durham(1965)의 자기평정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사용하여, 중고등 학생과 소년원에 수감중인 비행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일수록 불안 및 우울지수가 높았으며, 우울성향이 불안성향보다 청소년 비행 변별에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박두병 나철 이재광 박광식 장동산 이길홍과 민병근(1986)이 SDS를 활용하여 소년원에 수감중인 비행청소년과 중·고등 학생을 비교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이 우울지수가 높았으며, 우울척도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변별력은 92.5%나 되었다. Hathaway와 Monachesi(1951)가 비행집단의 MMPI 프로파일을 발견하려는 연구를 최초로 시도한 결과, 타당성척도에서 F척도(신뢰성점수)가 높고, 임상척도에서 Pd(정신병질),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척도가 높으면 비행을 이 높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황정규(1997)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일탈행동은 부적관계를 나타내므로써, 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일탈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청소년비행이 정신건강 관련변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한 결과들도 있다. 이동근과 이상연(1985)이 소년감별소에 보호 중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MMPI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비행집단이 정상집단보다 Mf(남성성-여성성) Sc(정신분열증) Ma(경조증)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D(우울증)척도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척도들은 정상집단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학업성취와 가정환경, 귀인, 건강의 관계

청소년 학업성취와 가정환경

청소년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최근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주고 있다. 어떤 일에서의 성취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은 부모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별히 그것이 학업과 관련된 성취였을 때, 부모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다는 반응율은 47.5%로서 매우 높다.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의 정적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성수(1998)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부의 지원, 모의 지원은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지원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지원이,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귀덕(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갈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분리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표집대상에 따라 약간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다. 도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손정기, 예정)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성

취지향적이며,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해 주고, 함께 지내는 시간과 대화시간이 많으며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가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갖고, 자녀와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은 낮게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박강수, 예정)는, 어머니의 애정과 성취지향성 및 지원이 높을수록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어머니가 무관심하고 자녀와 갈등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초등학교(이길자, 예정)의 경우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적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더욱 높았다. 농촌 중학생(이길자, 예정)의 경우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무관심과 거부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았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애정이 많을수록 성적이 높았다. 농촌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분석(노동철, 예정)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과 애정 및 어머니의 지원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나, 부모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자녀와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았다. 농촌 실업계 고등학생들(노동철, 예정) 경우는 부모의 성취지향과 이해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나 자녀에 대한 애정 성취지향 및 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대 무관심 거부 및 자녀와의 갈등은 학업성적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학업성취와 귀인

그동안 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의 결과들은 내적통제신념이나 내부귀인이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누

적된 결과를 종합한 연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 예컨대 Bar-Tal, Kfir와 Bar-Zohar(1977)가 36편의 논문을 정리한 결과, 31편에서 내적통제신념과 학업성취도의 정적 상관이, 1편에서 부적상관이, 4편에서 무상관이 나타났다. Uguroglu와 Walberg(1979)가 13개 연구의 통제부위신념과 성취의 상관계수 평균을 구한 결과는 .32로 밝혀졌다. Stipek와 Weisz(1981)가 35편의 논문을 정리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통제부위신념과 성취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학업성취는 내적통제신념이나 내부귀인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이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노력, 의지 성취욕구, 인내, 마음가짐, 신념, 끈기와 같은 '자기조절'임을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별히 학업과 관련된 성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기조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나 되므로써,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등 자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므로써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강한 내적통제신념을 나타내는 결과는, 양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박영신(1995)이 대학 장학생과 학사경고자를 비교한 결과 장학생이 훨씬 내적통제신념이 높았으며,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수/A'인 집단이 '양,가/D,F'인 집단보다 내적통제신념이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최영표(1996)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내적통제신념이 높고 외적통제신념이 낮으며, 중국 한족 대학생의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내적통제신념이 높았다. 박영신(1995)의 통제부위신념검사를 활용한 김묘성(1997; 중학생 표집)과 김정선(1996; 고등학생 표집)의 결과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내적통제신념이 높고, 외적통제신념이 낮은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한편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으로서의 통제부위신념 외에, 구체적인 귀인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내부귀인의 정도가 높으므로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영신(1996)이 대학교 장학생과 학사경고자집단을 비교한 결과는, 장학생이 더욱 노력귀인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노력귀인을 많이 하였으며, 운명이나 운에 대한 귀인은 적게 하였다. 이외에도 누적학업성취도에 따라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에서 차이(박영신 1986, 1989)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학업성취와 건강

스트레스는 상황적이거나 개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개인적인 요인 중에는 사람들의 연령, 성, 직업, 사회경제적지위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요인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다르다. 예컨대 고등학생은 대학입학이, 대학생은 직업선택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은 학업관련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학생들은 상황회피 및 절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서는 불안이며, 그 다음으로 불쾌감 분노 열등감/절망 무력감/우울과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성취여부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절망 등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연령에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업적 성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인 분석결과들도 학생의 경우에 학업이 중요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정규(199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서 경험빈도가 많은 생활사건은, 시험에서의 실패, 학교성적의 부진, 성적저하로 부모에게 야단맞음이었다. 즉 이러한 생활사건은 모두 학교의 학업성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등학생의 약 30%가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김광일 원호택 김인영과 김명정(1983)의 연구에서는 89%의 고등학생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 적응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공부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다. 이경희(1995)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 모두 학업성적 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였으며, 원호택과 이민규(1987)가 고등학생을 개별 면접하여 스트레스 경험 739개를 분류한 결과,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주로 부모 이성 교사와의 대인갈등에서 유발되고, 이러한 대인갈등에 학업문제와 외모에 대한 고민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결과(박광배와 신민섭, 1991)도,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방 법

표집대상

비행청소년은 경기도 및 충청도의 남자소년원과

경기도에 있는 여자소녀원에서 표집하였다. 학생은 인천시의 남녀중학교 2학년을 1학급씩,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1학년을 1학급씩 표집하였다. 비행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6.3세이며, 분포는 13 - 19세이었다. 중·고등학생집단의 평균연령은 16.5세이고, 분포는 14 - 19세로서, 두 집단의 연령 분포는 유사하다.

표 1은 표집대상을 집단별, 성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비행청소년은 남녀 각 51명, 92명으로서 143명을 표집하였다. 학생은 남녀 중학생이 각 37명 50명이고, 남녀 고등학생이 각 51명으로서, 189명을 표집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표집대상은 332명이었다.

표 1. 표집대상

성별 \ 집단	비행청소년	학생	계
남	51	88	139
여	92	101	193
계	143	189	332

측정도구

가정환경검사

가정환경은 부모의 성취지향과 통제 및 사회경제적지위를 측정하였다. 부모 성취지향은 부모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중에서 성취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 및 관심도와, 성취관련 과제에서 자녀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부모 성취지향의 측정은 박영신(1989)이 제작한 10개 문항(Alpha계수; 중학생=.64, 고등학생=.76) 중에서 7개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통제의 측정은 Rohner와 Pettengill(1985)이 개발한 20 문항 중에서, 한국 청소년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한국 및 재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Kim & Choi, 1994)한 결과, 부모 통제는 .80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부모성취지향

및 부모통제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성취지향적이거나, 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는 부와 모의 교육 정도와 부와 모의 직업 및 경제적인 생활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귀인양식검사

귀인양식검사는 성패귀인과 통제부위신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¹⁾ 귀인양식검사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성패귀인 측정을 위한 귀인상황은 학업, 성공, 건강, 경쟁, 행복, 관계의 6가지이며,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 지 외집단영향귀인의 6가지 귀인요소를 측정한다. 통제부위신념은 내적통제신념과 외적통제신념의 두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의 정도를, 후자는 생의 사건들이 운명 행운 타인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 대학생들 표집 대상으로 한 각 변인들의 Cronbach alpha계수(박영신 김의철, 1997)는 .74~.87로서 양호하였다.

건강검사

WHO에서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지적인 바 있다(Berry & Kim, 1988).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변인을 포함하였다.

1) 귀인양식검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영신과 김의철(1997)을 참고할 것.

스트레스검사는 Cawte(1972)가 비교문화연구를 위해 Cornell Medical Index에서 20문항을 추출하여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한 것 중에 신뢰도가 높은 12문항을 선택하였다. 스트레스검사는 심인성 신체증상(6문항)과 우울증(6문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하며,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만족도검사는 Kim(1988)이 Taft(1986)의 도구를 기초로 제작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개인의 생활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만족의 정도는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의 7점 척도로 응답하며,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배경정보

배경정보에서는 학업성취도와 성별, 연령, 소속 학교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표집대상의 성취행동 측정치로서, 학교에서의 평균 성적에 대해 응답자가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실시방법

비행청소년은 연구자가 직접 소년원을 방문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학급단위로 실시하였다. 실시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검사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30~50분 정도이었다.

결 과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문항-전체 상관계수 검토

각 측정문항들에 대해 문항-전체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내집단귀인의 16번(비행청소년; .11, 학생; -.20)과 부모통제의 15번(비행청소년; .07, 학

생; .43)이 문제가 있고, 그 외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문항을 제외하고 각 측정변인에 대해 alpha계수를 구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정환경검사에서 부모성취지향은 신뢰도가 .80이상으로 양호하나, 부모통제는 학생집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나 비행집단에서 신뢰도계수가 낮다. 귀인양식검사의 하위변인들에서 비행청소년은 .62~.85를, 학생은 .66~.86 사이의 신뢰도계수를 나타내므로 대체로 양호하다. 귀인양식검사 하위변인 중에서 운명귀인과 운귀인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내적통제신념과 외적통제신념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건강검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변인 모두 .78~.82 사이의 신뢰도를 보이므로 양호하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	집단	비행청소년	학 생
가정환경검사			
부모성취지향		.81	.80
부모통제		.57	.72
귀인양식검사			
능력		.71	.66
노력		.79	.79
운명		.83	.86
운		.85	.84
내집단지원		.81	.81
외집단영향		.73	.68
내적통제신념		.69	.76
외적통제신념		.62	.71
건강검사			
생활만족도		.82	.78
스트레스		.79	.81

집단별 동질성 검토

중·고등학생 집단의 동질성 검토

비행청소년은 소년원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다른 학교생활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표집된 중·고등학교생이 이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서 동질적인지 검토하였다. 학생집단 내의 동질성검증을 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귀인양식, 가정환경, 건강의 하위변인들에 대해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단 학점($t=2.02$, $p<.05$)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의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중·고등학생의 자료를 합해 분석하였다.

성별집단의 동질성 검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 각각에 대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t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변인(부모성취지향, 부모통제, 사회경제적지위)과 일부 귀인양식변인(능력, 운, 외집단영향, 외적통제신념) 및 건강변인(생활만족도, 스트레스)에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귀인양식변인들 즉 내집단지원귀인($t=-2.40$, $p<.05$; 남 $M=3.25$ $SD=1.08$, 여 $M=3.69$ $SD=1.04$), 운명귀인($t=-3.16$, $p<.01$; 남 $M=2.98$ $SD=1.01$, 여 $M=3.54$ $SD=.98$), 노력귀인($t=3.49$, $p<.001$; 남 $M=5.94$ $SD=.70$, 여 $M=5.43$ $SD=.89$), 내적통제신념($t=4.10$, $p<.001$; 남 $M=6.10$ $SD=.55$, 여 $M=5.66$ $SD=.74$)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성취도($t=-2.54$, $p<.05$; 남 $M=2.64$ $SD=.90$ 여 $M=3.08$ $SD=1.02$)에서도 두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t -검증한 결과는, 일부 가정환경변인(부모통제)과, 대부분의 귀인양식변인(능력, 노력, 운명, 운, 내집단지원, 외집단영향, 외적통제신념) 및 건강변인(생활만족도, 스트레스)과 학업성취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환경변인 중에서 사회경제적지위($t=-2.28$, $p<.05$; 남 $M=3.13$ $SD=.58$, 여 $M=3.34$ $SD=.69$)와

부모성취지향($t=3.39$, $p<.001$; 남 $M=5.77$ $SD=.94$, 여 $M=5.30$ $SD=.98$) 및, 귀인양식변인 중에서 내적통제신념($t=-2.09$, $p<.05$; 남 $M=5.81$ $SD=.73$, 여 $M=6.02$ $SD=.64$)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비행청소년 경우는 일부 귀인양식변인과 학업성취도변인에서, 학생 경우는 일부 가정환경변인과 귀인양식변인에서 성차가 있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학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하는 아래의 모든 분석에서,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비행청소년과 학생 차이의 주효과에서 성별의 영향을 제거하는 공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행, 학업성취와 투입변인의 상관관계

표 3은 비행여부, 학업성취도와 기타 투입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것이다. 비행여부는 소년원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변인들과 단순상관을 구한 것이다. 표 3을 보면, 비행여부는 부모의 성취지향 및 사회경제적지위와 $r=-.26$, $-.25$ 의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므로써,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성취와 관련된 관심이나 격려를 적게 받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행여부와 부모통제와는 거의 무상관을 보인다. 귀인양식 변인 중에서는 외집단영향귀인 및 노력귀인과 부적 상관이 있고, 외적통제신념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가족 외에 교사나 친구 등 주위사람들의 영향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노력귀인을 하는 경향이 낮다. 그러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기 보다는 운명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신념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비행여부와 건강변인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로서 비행청소년일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으나, 관계의 강도가 높지는 않다.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을 합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투입변인의 관계를 보면, 부모성취지향 및 사회경제적지위와 학업성취도는 정적상관을 보인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성취지향적인 격려를 받는 정도가 약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귀인양식의 면에서 볼 때, 운명이나 운귀인과는 부적상관을, 내적통제신념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낸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운명이나 운에 대한 귀인을 높게 하고, 이와반대로 내적통제에 대한 신념은 낮음을 의미한다. 건강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낮으나, 반면에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행여부와 투입변인의 상관이 부분적이지만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투입변인의 상관을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 각각별로 재분석하였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학업성취도는 가정환경변인 중에 부모성취지향과 부모통제가, 귀인양식 변인 중에서는 내적통제신념이, 건강변인 중에서는 생활만족도가 $r=.20$ 이상의 정적인 상관이 높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성취지향적이고 통제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내적통제신념이 강하고 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비행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집단의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가정환경변인 중에서 부모통제와 부적 상관이, 사회경제적지위와는 정적 상관이 있다. 귀인양식 하위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노력귀인과 정적관계가, 운명이나 운귀인과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생활만족도와는 정적 관계가,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행여부와 학업성취도는 다

른 투입변인들과 관계의 방향이 거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부모성취지향, 부모사회경제적지위, 생활만족도변인에서 비행여부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방향은 반대이면서 비교적 관계의 강도는 높다. 즉 법적인 제재를 받는 비행을 적게 하고 반면에 학업성취도는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며, 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 집단은 학업성취도와 부모통제가 정적관계에 있고, 학생집단은 학업성취도와 부모통제가 부적관계를 나타내므로써, 두 집단간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비행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반면에 부모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다.

표 3. 비행여부, 학업성취도와 투입변인의 상관관계

투입변인	비행 여부	학업성취도		
		비행	학생	계
가정환경				
부모성취지향	-.26***	.27**	.00	.15**
부모통제	.06	.20*	-.21**	-.05
사회경제지위	-.25***	.07	.19**	.16**
귀인양식				
능력	.02	-.11	-.06	-.08
노력	-.13*	.01	.21**	.13*
운명	-.01	-.10	-.25***	-.19***
운	-.11*	-.03	-.17*	-.10*
내집단지원	.04	.12	-.12	-.02
외집단영향	-.26***	.06	-.07	.02
내적통제신념	-.07	.23**	.12	.17**
외적통제신념	.14**	.00	-.11	-.08
건강				
생활만족도	-.10*	.26**	.22**	.25***
스트레스	.06	-.09	-.19**	-.15**

* $p<.05$ * $p<.01$ ** $p<.001$

비행, 학업성취와 가정환경의 관계

비행, 학업성취와 부모성취지향의 관계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고, 비행여부와 학업성취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부모성취지향의 차이를 공변량분석 하였다. 비행여부는 비행청소년집단과 학생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학업성취수준별 집단은 응답자가 반응한 주관적인 성적을 기초로 성취상집단과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업성취도 분포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수 우 미 양 가 각각 5, 35, 58, 28, 14명이었고, 학생집단은 각각 9, 46, 94, 23, 14명이었다. 두 집단 모두 중간집단인 미가 가장 많고 최상위권 집단인 수와 최하위권 집단인 하가 가장 적었다. 아래의 모든 분석에서는 '수, 우'집단을 학업성취 상집단으로, '양, 가'집단을 학업성취 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 사이에 상호작용효과($F=4.68$, $p<.05$)가 있었으며,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주효과($F=6.43$, $p<.05$)도 있었다. 비행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p<.05$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p=.052$ 로서 집단간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는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부모성취지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1은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학생이나 비행청소년 모두 학업성취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부모성취지향의 평균값이 높은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학생은 학업성취 상집단과 하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비행청소년집단은 학업성취 상집단과 하집단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4와 그림 1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성취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 준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부모의 성취지향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학생들이든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이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

이든 낮은 집단이든 거의 일관되게 부모가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비행청소년은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가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표 4.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부모성취지향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여부 학업성취	비행청소년 M (SD)	학 생 M (SD)	계 M (SD)
하집단	4.69 (1.25)	5.41 (1.19)	5.03 (1.27)
상집단	5.20 (1.14)	5.50 (.96)	5.38 (1.05)
계	4.90 (1.22)	5.52 (.99)	

<부모성취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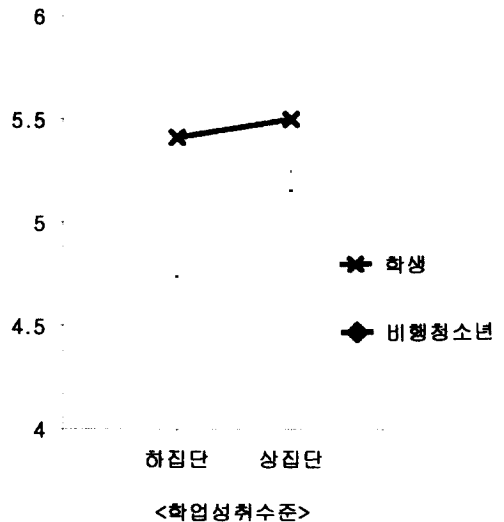


그림 1. 비행여부별 × 학업성취수준별 상호작용: 부모성취지향

비행, 학업성취와 부모통제의 관계

성별을 공변인으로 효과를 제거하고,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부모통제지각에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10.12$, $p<.01$)가 있었으며, 비행여부 및 학업성취수준 각각의 주효과는 없었다. 표 5는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부모통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며, 그림 2는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표 5와 그림 2를 볼 때,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성취 상집단이 부모통제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은 이와반대로 학업성취 하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인다. 즉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집단일수록 부모가 통제하는 정도가 적다고 지각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공부를 잘하는 집단일수록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저한 상호작용경향성으로 미루어보아, 일반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통제가 성취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비행청소년들의 경우는 부모의 통제가 없으면 학업적 성취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부모통제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여부 학업성취	비행청소년 M (SD)	학 생 M (SD)	계 M (SD)
하집단	4.31 (1.10)	4.65 (1.18)	4.47 (1.14)
상집단	4.66 (.83)	4.14 (.95)	4.35 (.93)
계	4.44 (.96)	4.31 (1.00)	

<부모통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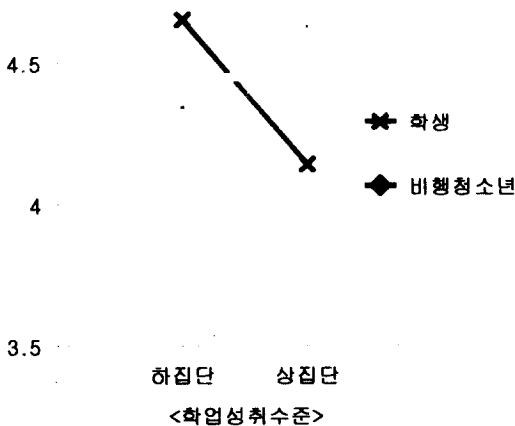


그림 2. 비행여부별 x 학업성취수준별 상호작용: 부모통제

비행, 학업성취와 사회경제적지위의 관계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차이를 공변량분석(공변인; 성별)한 결과, 비행여부에 따른 주효과($F=10.94, p<.001$)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주효과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058$ 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은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 집단별 부모 사회경제적지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현저하게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며, 학업성취수준별로는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평균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부모의 교육정도나 직업수준 및 경제적 생활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훨씬 낮은 부정적인 가정환경임을 알 수 있다.

표 6.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사회경제적지위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여부 가정환경	비행청소년 M (SD)	학생 M (SD)
사회경제적 지위	2.94 (.58)	3.24 (.65)

학업성취수준 가정환경	하집단 M (SD)	상집단 M (SD)
사회경제적 지위	2.96 (.67)	3.25 (.64)

비행, 학업성취와 귀인양식의 관계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공변인으로 공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귀인양식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없었다. 비행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외집단영향귀인($F=10.65, p<.001$)과 외적통제신념($F=4.69, p<.05$)에서 나타나고, 그 외의 귀인양식 하위변인들에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주효과는 운명귀인($F=12.23, p<.001$)과 내적통제신념($F=5.59, p<.05$)에서 있었으며, 그 외의 하위변인들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7은 비행여

부별 집단과 학업성취수준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정리한 결과이다. 비행청소년은 학생보다 외집단영향귀인은 낮으나, 외적통제신념은 높다. 또한 학업성취 하집단은 상집단보다 운명귀인이 높으나, 내적통제신념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비행청소년은 학생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개인의 내적인 통제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운명이나 운 등 개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사나 친구 등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대해 귀인하는 경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과 귀인의 관계를 보면,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운명에 대한 귀인을 많이 하며, 개인의 태도나 행동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된다는 신념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표 7.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귀인양식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여부 귀인양식	비행청소년 M (SD)	학생 M (SD)
능력	4.32 (.86)	4.36 (.72)
노력	5.61 (.86)	5.80 (.71)
운명	3.34 (1.02)	3.33 (.99)
운	3.26 (1.04)	3.51 (.96)
내집단지원	3.53 (1.07)	3.49 (.92)
외집단영향	3.90 (.88)	4.32 (.74)
내적통제신념	5.82 (.71)	5.92 (.69)
외적통제신념	4.12 (.86)	3.88 (.90)

학업성취수준 귀인양식	하집단 M (SD)	상집단 M (SD)
능력	4.45 (.77)	4.24 (.87)
노력	5.61 (.74)	5.77 (.79)
운명	3.65 (1.06)	3.16 (.95)
운	3.51 (1.07)	3.27 (.97)
내집단지원	3.55 (1.09)	3.50 (1.05)
외집단영향	4.20 (.83)	4.12 (.86)
내적통제신념	5.72 (.72)	5.96 (.67)
외적통제신념	4.16 (.95)	3.93 (.86)

비행, 학업성취와 건강의 관계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이 건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을 공변인으로 공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및 비행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 집단별로 생활만족도($F=15.52, p<.001$)와 스트레스($F=4.87, p<.05$)에서는 주효과가 있었다. 표 8은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성취 하집단은 상집단보다 생활만족도의 평균이 낮으나, 스트레스의 평균은 높다. 그러므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생활만족도는 낮고 스트레스는 높음으로써, 건강의 면에서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비행여부별, 학업성취수준별 건강 평균과 표준편차

비행여부 건강	비행청소년 M (SD)	학 생 M (SD)
생활만족도	4.18 (1.03)	4.43 (.81)
스트레스	3.66 (1.05)	3.49 (1.02)

학업성취수준 건강	하집단 M (SD)	상집단 M (SD)
생활만족도	3.96 (.98)	4.49 (.90)
스트레스	3.67 (.99)	3.31 (1.10)

논의 및 결론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과의 관계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비행 및 성취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할수록 자녀는 비행을 적게 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와같이 부모가 성취지향적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청소년 자녀가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적게 한다는 결과는, 소년원생과 일반 학생을 비교한 연

구(원호택, 1991; 박종화, 1996)들이나, 학생집단 내에서 일탈행동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이길자, 예정; 노동철, 예정)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부모가 성취지향적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성취의식을 분석한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학생들은 학업적 성취를 위해 도움을 준 사람으로 부모를, 또한 학업적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정서적 지원을 지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의 격려와 칭찬, 자신감을 심어 줌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이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또한 학업성적과 부모의 성취지향성(손정기, 예정; 노동철, 예정) 및 어머니의 성취지향성(박강수, 예정)에 대한 결과들도 이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와 더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도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는 부적관계에, 성취행동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보다 비행청소년의 부모가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소년원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원호택(1991)의 연구나, 가출경험 유무 고등학생집단을 비교한 이상미(199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은, 도시 청소년(안귀덕, 1997; 손정기, 예정; 박강수, 예정)이나 농촌 청소년(이길자, 예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는 자녀가 어떠한 행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표 3 참고),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학업성취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학생의 경우에 학

업성취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변인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여 성별효과를 제거한 뒤에, 비행여부와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부모통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표 5 참고)에서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되고 있다.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은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나, 이와 반대로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통제를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매우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간의 불일치하는 결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한다. 학생보다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더욱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통제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결과(윤진 등, 1989; 조현진 등, 1991)나, 일반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가 권위적이고 통제적일 때 일탈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김준호 등, 1990; 노동철, 예정; 안귀덕, 1997; 이길자, 예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통제가 적을수록 청소년들의 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들(남재봉, 1992; 원호택, 1991)이 있으며,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비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박종화, 1996)도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들은 부모통제와 청소년 비행여부의 관계에만 분석의 초점을 두므로써, 이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미처 고려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Feldman & Rosenthal, 1991; Kim & Choi, 1994; Trommsdorff, 1985)에서 동양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관심의 표시로 인식하고, 부모의 통제를 권위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

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모의 통제는 한국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 즉 학업적 성취수준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비행여부나 성취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작용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 비행여부나 학업성취수준과 같은 자녀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이 조성되고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자녀의 행동을 예언하려는 경향이 높았는데, 부모통제와 관련한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특성과 자녀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과 관계 맥락적인 특성에 관심을 둔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기초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을 재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학업적 성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노력이나 의지와 같은 자기조절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가정환경변인에 대한 반응율이 높았다. 또한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부모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며, 성취행동이든 일탈행동이든 부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귀인양식과의 관계

비행여부와 귀인양식의 관계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비행청소년은 학생보다 외적통제신념이 훨씬 강하나, 외집단영향귀인의 정도는 약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노력귀인이

나 내적통제신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비행청소년이 외적통제신념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박종화,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비행청소년들일수록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보다는 운명이나 행운과 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신념이 더욱 강하다. 반면에 비행청소년들이 외집단영향귀인이 낮게 나온 것은, 현재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일반 친구나 교사와 같은 외부인들과 접촉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과 귀인양식의 관계를 보면,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운명에 대한 귀인을 많이 하고, 내적통제신념은 약하였다. 비록 관계의 정도가 약하나, 학업성취도는 노력귀인과 정적이고, 외적통제신념과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적통제신념이 높은 학업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수행해온 결과(박영신, 1995;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Park & Kim, 1998)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김묘성, 1997; 김이천, 1987; 김정선, 1996; 이병준, 1992; Bar-Tal, Kfir, & Bar-Zohar, 1977; Findley & Cooper, 1983; Phares, 1976; Stipek & Weisz, 1981; Uguroglu & Walberg, 1979)에서도 높은 학업성취와 내적통제의 정적관계는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성패귀인에 대한 연구결과들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예컨대 대학교 장학생이 학사경고자보다 학업의 성공을 더욱 노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한다든가(박영신, 1996), 중학교 전과목 누가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학업의 성공을 능력과 같은 내부에 귀인하는 정도가 높은 결과(박영신, 1986)들이 있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 운명귀인을 많이 하는 결과는 박영신과 김의철(1997)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비행이나 성취행동과 같은 행동적 특징들은 개인의 귀인양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내적통제신념이 높고 운명귀인이 낮으며, 비행청소년일수록 외적통제신념이 높다. 김의철과 박영신(1998)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은 자기의 성취를 노력이나 의지력과 같은 자기조절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지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이 연구의 결과와 결부하여 본다면, 성취의 주된 원인으로 노력 및 자기조절을 인식하는 태도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건강과의 관계

이 연구에서 비행청소년과 학생은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의 비행청소년들이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가(원호택, 1991), 우울(박두병 등, 1986) 또는 불안 및 우울이 높다는가(장동산 등, 1985), 생활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일탈행동이 높다는(황정규, 1997) 결과와 다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소년감별소 비행청소년과 학생이 MMPI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동근과 이상연(1985)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된다. 비행청소년이 학생보다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 면에서 정신적으로 불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학생들도 비행청소년들과 다름없는 스트레스나 생활에서의 불만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정신건강의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인 결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병근 이길홍과 김현수(1979)가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7%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이들 중 8.9%는 실제 자살기도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 3월부터 1989

년 2월까지 자살한 중·고등학생은 126명으로 하루 평균 3일에 1명이 자살하였다(오경자, 1993). 또한 학생범죄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문화체육부, 1996),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체의 32.2%나 된다는 사실 등은, 청소년 연령의 학생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생활만족도의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간에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학업성취수준의 상·하에 의해서는 정신건강에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에서의 성취여부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외에 청소년집단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지적인 양적 분석결과들(원호택 이민규, 1987; 이경희, 1995; 황정규, 1990)과도 일치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행동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특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에 대한 맹신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가 지적하는 핵심은, 물론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정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나, 그것이 모든 자녀들에게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처럼, 학생의 경우에 부모의 통제가 약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의 통제가 강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잘 예시해 주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에 대한 환경의 영향 자체보다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현상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동적 특성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모가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비행을 하는 경우가 적고 학업성취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성취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부와 모에 대한 지각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부모성취지향'과 '부모통제'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비행청소년과 학생 모두, 부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있음을(원호택, 1991) 고려하여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부와 모의 영향이라는 면에서 따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이혼 증가율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편모나 편부 또는 계모나 계부와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결손된 가정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을 예측해 볼 때,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가치에 대한 대처와 적응의 맥락에서 볼 때, 부모-자녀관계를 전반적으로 파

악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와 자녀관계 모와 자녀관계라는 보다 구체화된 변인과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결손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환경변인에 대한 탐색은, 학문의 사회적 책무성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검토한 결과는,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지만, 비행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이 연구나, 학업성적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원호택과 이민규, 1987; 이경희, 1995; 황정규, 1990)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업적 성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과 학생집단간에 생활만족도나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이 연구의 결과나, 학생집단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보고들(민병근 등, 1979; 오경자, 1993; 문화체육부, 1996)로부터, 청소년 연령의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에서 불만족하는 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학생집단의 삶의 질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강력히 시사된다. 입시 준비가 주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되고 있는 한국의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학업적 성취를 하는 집단은 일부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적적인 실패경험을 하고 있다.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정신적 건강의 상태가 많이 차이나는 이 연구의 결과와 결부하여 본다면, 학교교육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획득하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전략하게 되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학업문제 외에도,

학생집단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스트레스 수준과 생활에서의 만족 수준에 그치고 있음은, 청소년 학생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청소년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건강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성취지향과 통제 및 사회경제적지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귀인양식과 건강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는 상관관계에 초점을 둔 것에 불과하며,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비행과 성취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비행과 성취행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친구변인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준호·노성호·곽대경(1992)이 판별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불량써클에 가입하여 비행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친구의 영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친구의 수나 처벌받은 친구의 수가 청소년들의 불량써클 가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김준호 등(1990)이 가정환경 변인과 친구변인들을 투입하여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고등학생과 재수생집단 모두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정교육에서 실패하여 비행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Snyder와 Patterson(1987)은 두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단계는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사회화과정으로 인해 거짓말이나 싸움 불순종과 같은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동료나 성인에 의해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학

업에서 실패하므로써 점차 비슷한 특성을 지닌 반사회적 동료집단에 참여하는 단계이다(조현진·박성수, 1991). 김의철(1997)은 Cavelli-Sforza & Feldman(1981)의 모형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친구로부터 수평적인 영향(horizontal influence)을 받음을 지적하고, 청소년문화의 형성에 있어 친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구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표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표집 수에 관한 문제로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을 표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표집대상 수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학생집단은 보다 충분한 표집이 가능하였으나, 비행청소년집단의 표집 수와 균형을 고려하여 중학교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남녀 각각 1반씩만 표집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좀더 확대하므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과 소년원에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을 집단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집단분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집단 내에서도 일탈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집단 내에서도 비행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에 감별소 청소년보다 더 높은 비행점수를 나타내는 경우(곽금주 등, 1991)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과 중·고등학생으로만 단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비행의 유형과 정도 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학생집단에 대해서는 ‘숨은 비행’(심영희, 1981)에 대한 관심도 게을리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들이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채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범법행동이 적발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청소년집단에서 행해지는 일탈적 행동들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청소년 자살행동 등 자기자신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학교 내에서의 '이じめ'와 같은 또래집단에 대한 집단적 공격행동, 약물 및 환각제 사용과 같은 자기파괴적인 행동들이 청소년집단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실상과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표집과 관련된 문제 외에, 측정의 면에서도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자기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의 현재 학업성취의 정도를 기록하였으나, 비행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학업성취수준이 아니라 학교재학 중의 학업성취수준을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과거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수준을 측정하기 보다는 학업성취수준이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수준 및 소년원에 수감되기 직전의 학업성취수준 등을 측정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변인 측정과 관련된 제한점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Cawte(1972)의 도구에 기초하여 심인성 신체증상과 우울증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에 토대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스척도를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스트레스척도에서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역과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측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표집이나 측정과 관련된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행동의 부정적인 면으로서의 비행과 긍정적인 면으로서의 성취행동이 다른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풍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의 출발에 불과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설계에 기초하여 청소년 행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김하연·윤진(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I):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김광문·정철희·윤화련(1982). 일련의 자물화 조치에 따른 청소년비행 방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
- 김광일·원호택·김인영·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I): 개인 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 1, 1-40.
- 김묘성(1997). 학업성취집단별 스트레스와 통제부위신념과의 관계.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1997). 한국 청소년문화: 연구모형. 안귀덕·황정규·김의철·박영신(1997).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연구논총 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의철·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건강, 2(1).
- 김의철·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
- 김이천(1987). 내외재적 통제의 소재와 학업성취

- 및 시험불안의 관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1996). 고교생의 학업성취수준과 통제부위 신념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노성호·곽대경(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재봉(1992). 청소년비행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동철(예정). 농촌지역 인문고 실업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1993). 청소년비행의 개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 3. 서원.
-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민병근·이길홍·김현수(1979). 한국 청소년 학생의 자살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 II, 2, 35-42.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강수(예정). 부모-자녀관계와 중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두병·나 철·이재광·박광식·장동산·이길홍·민병근(1986). 청소년비행과 우울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한국의과학, 18(1), 9-18.
- 박영신(1986). 인지발달수준에 따른 성패귀인과 과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24(2), 77-94.
- 박영신(1989). 한국 학생이 지각한 학업에 대한 성패귀인과 학습동기화 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1995). 대학 학업성취집단과 성별에 따른 통제부위신념의 차이.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9(1), 57-92.
- 박영신(1996). 대학생의 학업성취경험과 성패귀인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4(1), 89-112.
- 박영신·김의철(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초·중·고·대학생의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1(2), 71-98.
- 박영신·김의철·최영표(1996). 한국 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대학생의 통제부위신념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0(1), 171-196.
- 박종화(1996). 정상 비행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통제부위신념의 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편(1997). 비행소년의 분류심사: 분류심사 통계 및 사례, 제18집.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손정기(예정). 부모-자녀관계와 초등학생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근로청소년과 고교학생과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 15, 73-114.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용철(1993).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비행.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 1. 서원.
- 안귀덕(1997). 학업성취와 일탈행동 형성요인. 안귀덕 · 황정규 · 김의철 ·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 요인. 연구논총 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오경자(1993). 청소년의 정신건강.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 1. 서원.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원호택 ·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22-32. 한국심리학회.
- 윤진 · 박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진 · 김인경 · 김길청(1989). 청소년 비행과 자아중심성 발달과의 관계. 형사정책, 4, 67-96.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길자(예정). 농촌지역 초·중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근 · 이상연(1985). 비행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다면적 인성검사에 의한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4(3), 413-420.
- 이병준(1992). 국민학교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1997). 비가출 가출경험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중증감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근(1997). 청소년의 내외통제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 송인섭(1979). 청소년비행의 사회심리학적 측면.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12(4), 1-48.
- 장동산 · 이길홍 · 민병근(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의지, 10(4), 405-422.
- 조현진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55-7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편(1996). 폭력은 싫어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지도. 도서출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성수(1998). 초등학교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성취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90).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41, 25-63.
- 황정규(1997).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안귀덕 · 황정규 · 김의철 ·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연구논총 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Bar-Tal, D., Kfir, D., & Bar-Zohar, Y. (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 181-199.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A review. In P. Dasen, N. Sartorius, & J. W. Berry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 Beverly Hill, CA: Sage.
- Cavelli-Sforza, L. L., & Feldman, M. (1981). Cul-

- tural transmission and evolution: A quantitative approa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wte, J. (1972). *Cruel, poor and brutal natio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Feldman, S. S., & Rosenthal, D. A. (1991). Age expectations of behavioral autonomy in Hong Kong, Australian and American Youth: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s' valu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6(1), 1-23.
- Findley, M. J. & Cooper, H. M. (1983).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4(2), 419-427.
- Gibbons, D. (1976). *Delinquent behavior*,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thaway, S. R., & Monachesi, E. D. (1951). The prediction of juvenile delinquency using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8, 469.
-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 University, Canada.
- Kim, U. & Choi, S. C.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Cocking (Eds.), *Cognitive socialization of minority children: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rk, Y. S., & Kim, U. (1998). *The educational challenge of Korea in the global era: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government*. Key-note addres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tructuring the Knowledge Base of Education in Asia, February.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Phares, E. J. (1976). Locus of control. In H. London & J. E. Exner(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pp. 263-304). New York: John Wiley & Sons.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the Korea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60.
- Snyder, J. 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 (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John Wiley & Sons.
- Stipek, D. J. & Weisz, J. R. (1981).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1(1), 101-137.
- Taft, R. (1986). The psychological study of the adjustment and adaptation of immigrants to Australia. In N. T. Feather(Ed.), *Survey of Australian Psychology: Trend for Research*, Sydney: Georgy Allen and Unwin.
- Trommsdorff, G. (1985). Some comparative aspects of socialization in Japan and Germany. In I. R. Lagunes &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s: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 Lisse: Swetz & Zeitlinger.
- Uguroglu, M., & Walberg, H. (1979). Motivation and achievement: A quantitative synthe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6,

- 375-389.
- Zung, W. W. K. (1971).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371-379.
- Zung, W. W. K., & Durham, N. C.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The Relationship among Attributional Style, Home Environment, Health, and Delinquency: Comparative Analysis of Incarcerated Adolesc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Young-Shin Park¹ and Uichol Kim²

¹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attributional style, health (assessed by life-satisfaction, stress), academic grade, and home environment (assessed by perceived parental control,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ith a sample of adolescents incarcerated in detention centers (n=143) and high school students (n=189). The following pattern of results were obtained. First, when compared to the incarcerated adolescents, the high school students had higher scores o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academic grade.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the perceived parental control of the high achievers was lower when compared to the low achievers, but the exact opposite was found for the incarcerated adolescents. Third, in terms of attributional styl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en compared to the low achievers, the high achievers we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on internal attribution and lower on fate attribution. Fourth, the incarcerated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on external attribution and lower on outgroup influence when compared to the high school students. Fifth, for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incarcerated adolescents. Sixth, the high achievers had higher life-satisfaction and lower stress scores when compared to the low achievers in both samples.